



연장끝 역대 최고령 우승은 놓쳐지만... 환갑 골퍼의 감동 골프

왓슨 아름다운 준우승

1977년 백투의 결투가 32년만에 재연됐지만 이번에는 톱 왓슨(미국)이 주인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톰베리 링크스 에일사 코스를 찾은 수많은 갤러리들은 60세의 노장 왓슨에게 우승자에게 보내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줬다. 20일(한국시간) 끝난 제138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왓슨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들뻘 되는 스튜어트 싱크(미국)에게 클라레 저그를 넘겨줬지만 그가 보여준 투혼은 골프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49년 9월 4일생인 왓슨은 1971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뛰어들어 통산 39승을 올렸고 이 가운데 메이저대회 우승은 여덟차례나 된다. 1999년부터는 시니어투어에서 뛰며 12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젊은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역대 우승자에게 주는 초청장을 받고 올해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던 왓슨은 "마스터스에는 들러리가 될까봐 더 이상 출전하고 싶지 않다. 완벽한 샷을 날릴 준비가 된 대회만 출전하기로 했고 이번이 그 대회였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왓슨이 이번 대회에서 정규 72홀에 이어 연장전 4개홀까지 보여준 샷은 젊은 선수들의 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페어웨이를 놓치지 않는 정교한 티샷과 어떠한 상황에

서도 흔들리지 않는 퍼트, 그리고 온화한 미소까지. 하지만 18번홀(파4)에서 나온 보기는 왓슨이 톰베리의 전설로 남는데 장애물이 됐다. 1타차 선두를 달리던 왓슨은 이 홀에서 8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 샷을 그린을 넘겨 그린 가장 자리에 떨어 뜨렸다. 그리고 이어진 보기. 이 홀에서 파만 지켰다면 왓슨은 브리티시오픈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인 1867년 톰 모리스(스코틀랜드)의 46세 99일을 바퀴 놓았을 뿐 아니라 메이저대회를 통틀어 최고령 우승인 1968년 US오픈 줄리어스 보로스(미국)의 48세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었다. 왓슨은 "9번 아이언을 잡았어야 했다"며 후회했지만 연장전을 치러야 했고 60세의 나이는 4개홀 스트로크 플레이를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다. 연장 첫번째 홀인 5번홀(파4)에서 1타를 잃고 6번홀(파3)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17번홀(파5)에서 드라이버샷을 깊은 러프에 빠뜨렸던 왓슨은 "그 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깊은 러프에서 한번만에 탈출하지 못한 왓슨은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냈고 다음 홀에서 샷은 승패에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 60세의 노장은 패배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는 취재진과 갤러리들에게 왓슨은 "이것이 장례식은 아니잖아요?"라며 반문하며 나흘동안 격전을 벌였던 에일사 코스를 떠났다. /연합뉴스

싱크 클라레 저그 품다



브리티시 오픈 연장 우승

36세의 스튜어트 싱크(미국)가 제138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60세 노장 톱 왓슨(미국)과 연장 접전 끝에 클라레 저그(우승컵 대신 은으로 만든 주전자)를 차지했다. 싱크는 20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톰베리 링크스 에일사 코스(파70·7천2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2언더파 278타로 왓슨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4개홀에서 6타를 앞서 정상에 올랐다. 대회 중반 왓슨과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싱크는 18번홀(파4) 버디로 잡은 연장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인 통산 여섯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달성했다. 역대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을 노렸던 왓슨은 우승컵을 눈앞에 뒀던 18번홀에서 1타를 잃고 연장전으로 끝러가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단독 선두 왓슨에 3타 뒤진 공동 6위에서 4라운드 시작할 싱크는 17번홀(파5)까지 버디 4개를 보며 4개로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18번홀(파4)에서는 3.5m를 남기고 버디 퍼트를 성공, 2언더파를 만들어 먼저 경기를 끝냈다. 이 때까지도 싱크가 연장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 갤러리들은 없었다. 챔피언조에 있던 왓슨은 17번홀에서 가볍게 버디를 낚아 3언더파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고 2언더파였던 웨스트우드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웨스트우드는 18번홀에서 2m 짜리 파퍼트를 놓쳐 크리스 우드(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3위(1언더파 279타)로 밀렸고 왓슨마저 이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면서 결국 연장전은 싱크와 왓슨의 대결로 좁혀졌다. 1989년 개정된 연장전은 5번, 6번, 17, 18번홀 4개홀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 4라운드 내내 정확한 티샷을 날렸던 왓슨에게도 체력의 한계가 을 수밖에 없었다. 싱크는 5번홀(파4)에서 파를 잡아 보기를 적어낸 왓슨을 앞서 나갔고 6번홀(파3)에서 똑같이 파로 막은 뒤 17번홀에서 사실상 우승에 쐬기를 박았다. 싱크는 두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리고 나서 2퍼트로 마무리하며 버디를 잡았고 왓슨은 티샷을 깊은 러프에 빠뜨린 뒤 탈출하지 못해 2타를 잃어 버렸다. 의기양양하게 마지막 홀에 올라온 싱크는 18번홀에서도 두번째 샷을 홀 1m 이내에 붙여 다시 1타를 줄이며 활짝 웃었고 보기를 적어낸 왓슨은 온화한 미소로 싱크의 우승을 축하해 줬다. /연합뉴스

쌍둥이 제물 순위 상승 노린다



KIA, LG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 나지완 팀 상승세 주도...1위 눈독

마주마주 프로야구

전력을 재 정비한 KIA 타이거즈가 연승 기록에 도전한다. 주말 한화와의 경기에서 투·타의 우위를 앞세워 2연승을 달린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홈에서 LG 트윈스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KIA는 꾸준한 성적으로 0.536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번번이 상승 길목에서 발목이 잡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KIA의 연승 기록은 3연승이 최고다. 20일 현재 5위 삼성까지 5할 승률(0.512)

을 기록하면서 물고 물리는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KIA는 주말의 기세를 몰아 올스타전 브레이크까지 최대한 승수를 쌓아두겠다는 계획이다. 객관적인 전력은 좋다. KIA는 19일 에이스 윤석민의 8이닝 무실점의 역투로 마운드 전력을 비축했고, 부상에서 탈출한 이용규·김원섭의 합류로 외야의 재구성도 끝마쳤다. 무엇보다 팀 타율(0.259) 끝까지 KIA의 방망이가 부쩍 매서워졌다. 지난주 우천으로 두 경기를 쉬 KIA는

4경기에서 3승1패를 기록했다. 4경기 팀 타율은 0.303이었고, 평균 득점은 7점에 이르렀다. 홈런은 6개가 터져나왔다. 18일에는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을 2와 3분의2이닝만에 강판 시키며 류현진 상대로 9연패의 늪에서 탈출하기도 했다. 특히 나지완은 지난주 5할 타율로 6타점 2홈런을 기록하며 팀 상승세를 주도했다. 18일 경기에서 한 달 여만에 홈런을 추가한 '빅 초이' 최희섭도 4경기 타율이 0.400을 기록하는 등 타격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전반기 마지막 상대인 LG는 불펜의 난조 속에 3연패를 기록하면서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다. 상대전적도 8승1무1패로 KIA가 절대적인 우위에 서있다. 연승기록에 도전하는 KIA는 순위상승까

프로야구 중간순위 (20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두산	46	35	2	0.554	2승
2	SK	48	35	5	0.545	2패
3	KIA	45	35	4	0.536	2승
4	롯데	46	42	0	0.523	7승
5	삼성	44	42	0	0.512	2승
6	히어로즈	38	44	1	0.458	1패
7	LG	38	46	3	0.437	3패
8	한화	28	54	3	0.329	5패

지 동시에 노린다.

1위를 지키던 SK가 최근 7연패 이후 다시 2연패에 빠지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여기에 1위 두산도 0.554의 승률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또한 1위 탈환에 성공한 두산과 7연승 중인 4위 롯데가 이번주 잠실에서 맞붙게 되면서 전반기 마지막 4팀의 순위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박빙의 한 주가 시작되는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양현종-봉준근 두 좌완 에이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상욱 시즌 7번째 톱 10

US뱅크 챔피언십 공동 7위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뱅크 챔피언십에서 시즌 7번째 톱10에 들었다. 나상욱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브라운 디어 파크 골프장(파70·6천75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쳐 함께 10언더파 270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에 4타차 뒤진 채 추격전을 펼쳤던 나상욱은 3번홀(파3)과 6번홀(파5)에서 버디로 상승세를 탔다가 12번홀(파4)에서 보기

로 한 타를 잃었다. 이후 14번홀(파3)과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는 뒷심을 발휘하며 타수를 줄였다. 지난 6월1일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9위를 차지한 뒤 한 달 반가량 만에 톱10에 진입하며 나상욱은 이번 대회까지 올해 18개의 PGA 대회에 나와 톱10에 7번이나 들었다. 톱 랭커들이 같은 기간 열렸던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하느라 자리를 비운 이번 대회 우승권은 보 반 펠트(미국)에게 돌아갔다. 펠트는 2005년 프로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PGA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별들 직접 사인해요

광주 올스타전 행사 다채

11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서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2009 CJ마주마주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이벤트를 확정 발표했다. 장외에서는 올스타전을 기념해 8개 구단 역대 유니폼과 프로야구 및 WBC 한국 대표팀 사진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게 된다. 올스타 선수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레전드 및 올스타선수 팬사인회'도 열린다. 그라운드에서는 KBS 천하무적야구단 출연진들과 올스타 선수들이 함께 하는 '천하무적 야구 이벤트'가 열리고, 올스타전의 꽃 'G마켓 홈런 레이스'와 공개 프리포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모든 입장 관객에게는 올스타 부채와 함께 막대풍선과 선풍이 지급되며 42인치 PDP, DSLR 카메라, 넷북, 아이팟 등 다채로운 경품도 마련됐다. 각종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프로야구 대잔치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이명환 2군 올스타 MVP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명환(25)이 신고선수 성공신화를 꿈꾸고 있다. KIA의 신고선수 이명환이 18일 춘천의 압아구장에서 열린 2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MVP에 선정됐다. 남부리그팀 5번타자로 선발출전한 이명환은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지만, 이날의 유일한 안타가 팀의 7-5 승리를 이끄는 쐬기 투런포였다. 대구고교와 한양대를 거쳐 지난해 신고선수 신분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이명환은 올시즌 2군 5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9, 9홈런, 2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명환은 당초 목숨을 냈던 홈런 레이스에서 2개의 홈런으로 예선 탈락했지만,



시합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쏘아올리며 MVP의 영광을 안았다. 이명환은 "올스타전이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MVP까지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이번 기회를 1군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이명환은 또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며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이명환이라는 이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동성·화순고 8강행 화랑대기고교야구

화순고와 광주 동성고가 화랑기 8강에 진출했다. 화순고는 20일 부산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61회 화랑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청주 세광고를 상대로 3-0의 승리를 거두며 8강에 합류했다. 화순고 선발 이승현은 9이닝 4피안타 1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완봉승을 기록했다. 7번 김인환도 2개의 2루타로 3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동성고는 서울 배명고를 4-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올랐다. 1회말 문동욱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얻은 동성고는 2회 김민재의 적시타로 1점을 보았다. 이후 동성고는 6회 2-0의 박빙의 리드에서 터진 심의정의 투런포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화순고는 22일 오후 4시 성남고, 동성고는 같은 날 오후 1시 마산용마고와 대구고의 승자와 4강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

선동열 감독 삼성과 재계약

'국보급 투수' 선동열(46) 감독이 내년 이후에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지휘봉을 계속 잡는다. 삼성은 선 감독과 재계약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조건은 시즌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 또는 5년이 될 전망이다. 올스타 경기 이전에 구단이 현직 감독과 재계약에 합의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 구단은 19일 LG와 경기에서 승리한 뒤 선 감독에게 내년도도 계속 팀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고 선 감독도 명문구단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며 흔쾌히 구단의 요청을 수락했다. 선 감독은 2004년 말 5년간 계약금 5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15억원에 감독으로 계약했다.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뒤 2007년부터는 연봉이 3억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연합뉴스

